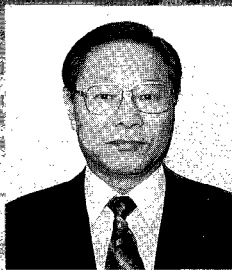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방한을 보고



김 순 채  
건국대학교 대우교수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방한을 보면  
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감회가 새  
삼스럽게 떠올라 영국민과 영연방국민들의 여  
왕에 대한 숭배심과 여왕을 구심점으로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음을 회고해 본다. 엘리자베스 2  
세 영국여왕을 거리에서 또는 TV 화면에서 세  
번 접할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1969년 당시 콜롬보플랜의  
장학금으로 호주에 유학갈 기회가 있었을 때의  
일이다. 나의 하숙집 할머니가 69세였는데 엘  
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호주를 방문한다는  
신문, TV뉴스에 나오니까 이상하리 만큼 흥분  
하면서 기뻐하셨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어 왜 그렇게 기뻐하시  
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첫째는 여왕이 인자하  
고 우아스럽고 예쁘다고 하셨으며 둘째는 모자  
는 어떤 모양의 모자를 쓰고 올 것이며 셋째는  
입고 오는 옷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다고 하  
셨다.

노인이 모자와 옷에 대하여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지 나로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 영국  
을 비롯하여 영연방국의 숙녀들 특히, 노인들  
은 모자를 즐겨 쓰고 다닌다. 그래서 영국여왕  
이 호수에 오면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며  
무슨 선물이라도 가져 오느냐고 하였던니 엘리  
자베스 2세 영국여왕은 통치권도 없고 다만 영  
국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영국 및 영연방국인으  
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일 뿐이라고 하셨다.

호주국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불러고 길가에 수만명이 아침부터 모여들어 입  
추의 여지없이 넓은 도로 양가에 몇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남의 나라 여왕이 무  
엇이 그렇게 좋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새통

을 이루었다.

특히 여왕이 쓰고온 모자는 호주여자들의 모자 유행에 크게 영향을 주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

두 번째의 일은 1977년 영국의 바이러스연구소에 연수할 기회가 있을 때 일이었다.

마침 그해가 여왕의 결혼 25주년 은혼식이 있는 해였다.

버킹검궁전 앞의 넓고 붉은 아스팔트도로 양쪽에는 은혼식을 보기 위하여 1주일전부터 관광객들이 텐트와 슬리핑백으로 노숙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왕을 한발짝이라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일동안 노숙하는 열광적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먼 곳에서 구경할 수 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행렬은 마차에 타고 경마대 뒤를 따르고 있으며 여왕의 어머니가 탄 마차 그뒤에 여왕의 가족, 왕족들이 줄줄이 탄 마차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다.

나는 좀더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기 위하여 마차행렬이 가는대로 먼길을 따라 가면서 가까스로 행렬사진을 1시간 가량 뒤에 촬영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일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우리나라 방문이다. 직접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TV로 여왕이 나올때마다 유심히 잘 보았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우리나라 방문은 1883년 영국과의 수교후 116년만의 국빈 방문이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더없는 귀한 손님이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우리나라 방문은 1883년  
영국과의 수교후 116년만의  
국빈 방문이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더없는  
귀한 손님이요 국가적으로  
양국간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적으로 양국간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73세의 생일잔치를 우리나라의 시골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잔치상을 차려드리고 생일 축하곡을 합창 하였을 때 TV화면에 비친 여왕의 얼굴에는 눈가에 물기가 반짝이는 모습은 순간적으로 마음속 깊이 감동한 것 같았다.

이 장면을 본 영국 및 영연방국민들은 시샘 아니면 부러워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는 직접 여왕을 볼 수 없었으나 여왕의 은혼식에서 보고 2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TV로 본 여왕의 근엄한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옛것을 보기 위하여 하회마을을 방문하였으며 인사동거리, 미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태권도를 관람하고 이화여대를 방문하는 등, 그리고 대우 디자인포럼, 대륙정밀 등 산업현장을 시찰하였다.

또한 인사동거리의 명신당 필방에 들러 훈민정음이라고 쓴 휘호를 선물받고 원더풀이라고

하면서 컴퓨터 시대인 지금도 붓으로 글씨를 쓰느냐며 신기하게 여겼으며 백자를 보고 어떻게 아름다운 백색이 나올 수 있느냐고 감탄하셨고 한복을 보고는 옷감이 무척 예쁘다고 예찬하였다고 한다.

비록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 및 발전상을 자세히 보고 가셨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 계기로 안동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니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의 그 영향은 영원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번 여왕의 방한으로 수혜자는 안동출신 권정달 의원, 스티븐 주한 영국대사도 여왕 방한으로 은덕을 입어 “경(Sir)”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여왕이 관계적으로 방문국의 영국대사에게 “경”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나 수많은 영국대사 중에서 이 칭호를 받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고 하며 서울대 언어학과 이현복 교수는 정통 영국영어 보급에 앞장서온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영국왕실이 영국문화 창달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CBE훈장을 받았다고 하니 이번 방한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영국 및 영연방국민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구심점으로 영국민이라는 과거 세계 일등국민임을 과시하며 호황을 누리던 식민지 통치시절을 지금도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엿보이지만 여왕을 구심점으로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나는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방한시에 우리나라 양계장을 보여 주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하는 욕심을 부려 본다.

마침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에 최첨단을 걷는 콜리슨 박사를 건국대학교 수의학부에서 초청하여 닭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현재 문제점을 앞으로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첨단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콜리슨 박사는 국내 양계장을 보고싶다고 하기에 대한 양계협회장이신 장대석 회장님께 강요하다시피 요청하였더니 평택의 에그농원을 소개해 주셔서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을 대신 콜리슨박사에게 시찰하도록 하였더니 미국의 양계와 차이가 없다고 칭찬하였다. 장대석 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양계**